**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롬 6:1-11>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일곱 번째 주간의 ‘참회의 수요일’에 시작되어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지속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기념되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22일 수요일부터 부활절 하루 전인 4월 7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4월 8일 부활절 바로 전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며, 이중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성금요일로 지켜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순절은 부활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절기는 단순히 세례 의식의 준비를 넘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향한 순례에 동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더 온전한 연합을 준비하는 절기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력을 기념하여 지키는 일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가톨릭의 복잡한 의식들을 상당 부분 철폐하고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려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대를 태우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 이 교회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어떤 율법적인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번의 기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일상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옷과 자동차, 화려하고 넓은 집, 충분한 은행 잔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 자신의 힘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들에 집착하며 삽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구세주는 그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고 하나님의 자리는 사물이나 야망으로 대체되곤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에 대해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러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소환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 보게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생명에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 하며 살아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논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20) 하지만 오해하진 마십시오. 그 구속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6:1)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6)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3) 이처럼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 하며 살지 마십시오! (6)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생명과 번영이 보장됩니다. 여기서 바른 관계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바른 감사, 바른 책임, 바른 헌신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죄는 이 바른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자 복종의 거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 죄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참된 인간성의 위반이며 부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어리석은 것, 무가치한 것, 허영, 어두움, 참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소망도 없는 것, 죽은 것 등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죄는 인간이 죽음에로 방향전환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차례차례 무서운 재앙을 동반합니다. 한두 차례 죄를 짓는 것은 이후 죄에 속박되어 죄에게 종 노릇 하는 상태를 야기합니다. 죄는 참된 인간성을 부패시키며, 우리를 도덕적 무능력과 내적인 혼돈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의 삵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아래 팔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명 없는 삶을 지나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며 다가온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우리는 이기심과 야망, 교만, 불성실, 분노, 무자비 등 여러 모습을 통해 그 유혹자에게 복종하곤 합니다.

4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존 크리소스톰은 “죄에 대하여 죽다”라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교활한 원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갑자기 뱀이 우리의 침상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뱀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또아리를 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편안히 누워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사탄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교를 알아차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 사탄은 오히려 우정을 가장한 채, 교묘한 수단으로 자신의 악독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 인간 중 하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유혹 앞에서 어떤 굉장한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 4:4)

이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시험과 이에 대한 승리는 실로 우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 아담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5-16)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원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를 가까이서 돕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껏 우리를 얽어 매고 있던 죄의 권세에 단호히 대항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직시하고, 은혜 안에서 그 죄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성령 안에서 그 죄악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경건한 척, 괜찮은 척 자랑하는 종교적 허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의 실상을 직시하길 원하십니다. 회심은 예수를 처음 영접하는 그 순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매 순간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쓰라린 아픔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은 이후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비록 그 빈도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슬퍼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와 싸우되 결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온전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나누어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우리의 옛 사람은 과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4).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 6:14, 17).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히 세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항하고, 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4)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된 것처럼,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됩니다. (5)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11)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이 부정적인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 우리를 진정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흐름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 가까이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도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나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 언급된 생명은 호흡이 붙어 있는 사람이 다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3-14)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면서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곧 물동이를 버려둔 채 예수를 전하러 가게 만든 것입니까?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자기가 3년이나 따라다니던 스승을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오히려 그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새 생명은 우리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순간부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까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얻게 되는 것이며, 우리 삶의 생명력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발현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식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온전히 역사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곧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4).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0-12)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늘 참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삶에 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성령은 주 예수의 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고전 12:3),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고전 2:16).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매개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롬 8:6).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법입니다 (롬 8:2).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롬 8:15).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합니다 (갈 5:17). 그리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갈 5:22-23).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영입니다 (살후 2:13).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롬 5:5)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롬 15:30)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전 12:13). 성령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영입니다 (고전 12:10-11).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영적 수련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4세기의 영성가 에프렘이 했던 사순절 기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

나를 헛된 말과 권력의 욕망과 실망, 그리고 나태한 마음에서 멀리해 주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정결의 마음을 주소서.

구주이시며 임금이시여,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내 형제들을 판단치 않게 하소서.

주는 영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는 헛된 말, 권력욕, 나약함, 나태함의 네 가지 부정적인 기질과, 사랑, 인내, 겸손, 정결의 네 가지 긍정적인 성품이 언급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처럼 내 안에 부정적인 기질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성품들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헛된 말, 권력욕, 나약함, 나태함처럼 내가 해방되기 원하는 부정적인 권세들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심 때는 사랑, 인내, 겸손, 정결처럼 여러분이 사모하는 긍정적인 성품들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긍정적인 덕목들을 하나나 두 개 이상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기도할 때에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날의 경험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와 수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식과 자선을 베푸는 일이 병행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종 노릇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